

중국현대문학사 분기 문제 재검토

— 중일전쟁 시기 대후방 문학에 관한 서술을 중심으로

최원준*

목 차

1. 들어가며
2. 중국현대문학사 속 중일전쟁 시기 분기 문제
 - 1) 중국 대륙: 공산당의 혁명 사관과 1942년
 - 2) 타이완: 국민정부의 반공 사관과 1945년
 - 3) 홍콩: 지정학적 특수성과 1945년
3.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현대문학사와 皖南事變
4. 한국의 중국현대문학사 속 중일전쟁 시기 분기 문제
5.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일전쟁 시기 대후방 문학에 대한 중국현대문학사의 서술이 각 지역과 시대적 맥락에 따라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중국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한 이후 중일전쟁 시기 문학은 공산당 중심의 혁명사적 프레임에서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대후방 문학의 성과를 축소 왜곡하였다. 이와 반대로 타이완의 문학사는 대후방 문예활동을 강조하고, 국민정부 정책을 옹호하며 좌익과 공산당 노선을 비판하였다. 홍콩의 문학사는 지정학적 특수성에 기대어 어느 한쪽의 정치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서술을 지향했고, 중일전쟁의 시작과 종료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문학사는 대후방 문단의 서술 비중을 높이고, 전쟁과 군사적 충돌이 문예계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 거시적 시각에서 중요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노력했다. 문학사의 서술 방식은 문학을 바

*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 강사

라보는 시각을 함축한다. 시대와 지역에 따른 중국현대문학사 서술의 차이와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중국 현대문학에 대한 학계의 관점이 어떠한 발전과정을 겪어왔는지 살펴보는 지표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대후방 문학에 관한 서술 특징과 그 변화를 밝혀내는 것은 세 번째 10년 시기 문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 중국현대문학사, 연안문예좌담회, 강화, 중일전쟁, 완난사변, 분기, 대후방

1. 들어가며

소위 중국 현대문학의 세 번째 10년으로 불리는 중일전쟁과 국공내전 시기(1937-1949)의 문학은 오랜 기간 중문학계에서 중국 현대문학과 당대 문학 사이의 과도기 정도로만 여겨졌을 뿐,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 해왔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전 시기의 문학은 사회변혁을 주도하는 계몽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 시기의 문학은 전쟁에 종사하는 위치에 놓였으며, 창작과 보급 환경 또한 매우 열악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중문학 연구자들은 이 시기의 정치 및 군사적 측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문학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중일전쟁 시기 대후방 문학은 줄곧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국민정부의 통치 아래 있었던 대후방 지역의 문학 활동이 제대로 분석될 수 없었고, 그 대신에 소위 해방구라 불리는 공산당 통치 지역의 문학이 이 시기 문학의 주된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茅盾(1896-1981), 老舍(1899-1966), 沈從文(1902-1988), 郭沫若(1892-1978), 巴金(1904-2005), 曹禺(1910-1996) 등 중일전쟁 이전부터 이름을 날리던 작가 대다수는 重慶이나 桂林 등 국민정부의 지배 아래 있던 대후방 도시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중일전쟁 시기에 전국의 문예계를 총망라하여 결성되었던 中華全國文藝界抗敵協會¹⁾도 국민정부의 전시수도였던 武

漢과 重慶에 본부를 두고 활동했다. 夏志清(1921-2013)이 『中國現代小說史』의 중일전쟁 및 이후 시기(1937-1957) 파트에서 張愛玲(1920-1995)과 錢鍾書(1910-1998)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茅盾, 沈從文, 老舍, 巴金을 “資深作家”로 묶어 개괄한 것²⁾은 대후방 지역이 중일전쟁 시기 주류 문단의 중심 활동 무대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중일전쟁 시기의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과거의 도식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대후방 문학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역대 문학사 서술에 대한 검토라고 할 수 있다. 문학사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제공하며, 문학사의 분기 문제는 문학사의 체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학계에서는 과거 김시준(1935-)과 허세욱(1934-2010)이 중국현대문학사를 집필할 때 기존의 중국 문학사를 검토하며 중국 현대문학의 분기 문제를 소개한 바 있고,³⁾ 유세중(1953-)이 분기 문제를 고찰한 바 있지만,⁴⁾ 중

1) 약칭 文協, 중일전쟁 시기 전국의 모든 문예 단체를 망라하여 설립된 문예 조직이다. 좌우뿐만 아니라 각종 문예 양식을 모두 포괄하였다.

2) 그는 제14장에서 대후방에서 활약한 資深作家를 살펴본 후에 제15장에서 張愛玲을 분석하였다. 중일전쟁으로 인하여 上海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이 대거 후방 각지로 빠져나간 뒤에 上海의 문단에는 張愛玲과 같은 신인이 등장했다. 夏志清은 張愛玲과 錢鍾書, 師陀를 집중 조명하여 중일전쟁 시기 上海문학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 夏志清, 『中國現代小說史』,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3) 김시준은 중국현대문학사를 집필하면서 서론에서 문학사 분기 문제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다만 중국현대문학사 전반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각 문학사 저서의 서술 방식을 소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중일전쟁 시기에 관한 분기 문제가 지니는 함의를 밝혀내는 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허세욱은 서론의 4절에서 시기 구분 문제를 다루었고, 제5장 1절에서 세 번째 10년 시기와 관련된 기존의 시기 구분 사례를 소개하였다. 김시준, 『중국현대문학사』, 과주: (주)지식산업사, 1992. 허세욱, 『중국현대문학사』, 서울: 법문사, 1999.

4) 유세중은 1991년에 중국현대문학사의 구분론을 연구했는데, 여기에서 「講話」를 문학사 분기의 기점으로 삼는 것의 타당성을 분석한 바가 있다. 다만 그 분석의 맥락을 보면, 혁명사의 관점에서 延安 문학을 중심으로 그 문학적 지위를 판단한 것이다. 중일전쟁 시기 중국 문학 전체 혹은 대후방 지역의 문예를 중심으로 놓는다면 재고찰이 필요하다. 유세중, 「중국현대문학사 시기구분론」, 『중국학연구』 제6집, 중국학연구회,

일전쟁 시기 대후방 지역을 중심으로 분기 문제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후방 문학에 초점을 맞춰 기존 중국현대문학사의 분기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서로 다른 정치 환경을 유지해온 중국과 타이완을 비교 분석한 후에, 지정학적으로 특수한 위치에 있었던 홍콩의 문학사 서술을 살펴보고, 개혁개방 이후의 문학사 서술 변화를 탐구한 뒤, 마지막으로 한국의 문학사 서술도 간략히 점검하고자 한다.⁵⁾

2. 중국현대문학사 속 중일전쟁 시기 분기 문제

1) 중국 대륙: 공산당의 혁명 시관과 1942년

주지하듯이, 기존의 문학사에서 중일전쟁 시기 문학은 보편적으로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었던 延安지역을 중심으로 한 解放區 문학과 上海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피점령지의 淪陷區 문학, 그리고 국민당 통치구역인 國統區 문학으로 나누어 서술된다. 그런데 마치 중립적인 시각에서 공산당 관할지와 국민당 관할지를 解放區와 國統區로 나눈 것 같이 보이는 이 용어는 사실 공산당의 사회주의 혁명사의 시각에서 정의된 개념이다. 國統區는 중일전쟁 시기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중일전쟁이 끝난 후 제2차 국공내전을 겪으면서 사용되기

1991.

5) 냉전 시기의 이데올로기 대립은 중국과 타이완 및 홍콩의 현대문학사 서술에 선명한 차이를 불러왔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학계는 서구의 각종 문학 이론과 문학사 서술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통하여 세계문학의 틀에서 중국 현대문학을 살펴보고 있다. 1980년대에 제기된 “20세기 문학”이나 근래에 제기된 “단기 20세기”와 같은 개념은 기존의 문학사 프레임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중국현대문학사를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냉전 시기의 중국, 타이완, 홍콩의 문학사를 비교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문학사 서술 변화를 고찰한 뒤, 마지막으로 국내의 문학사 서술 시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시작한 용어로, 국민당과 공산당의 이념 대립을 내포하는 정치적 의미의 용어이다.⁶⁾ 다시 말해 國統區, 解放區, 淪陷區라는 개념은 중국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한 후에 공산당의 관점에서 중일전쟁 시기의 구도를 재구성한 구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혁명사의 관점은 오랜 기간 문학사 서술에도 적용되었으며, 문학사의 분기 문제에서 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들어선 뒤, 1951년 중앙교육부는 산하에 ‘중국어문소조’를 설치했다. 이 ‘소조’의 위원 老舍·蔡儀(1906-1992)·王瑤(1914-1989)·李何林(1904-1988)은 정부의 중국현대문학사 편찬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中國新文學史教學大綱」을 초안했는데, 여기에서 중국현대문학사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 신문학 창조기(1917~1921), 2. 신문학 확장기(1921~1927), 3. 좌연성립 이후 10년(1927~1937), 4. 7·7사변부터 延安문예좌담회까지(1937~1942), 5. 延安문예좌담회부터 전국文代대회까지(1942~1949).⁷⁾

주목할 점은 이 지침에서 중일전쟁의 발단인 7·7盧溝橋事變이 제4단계의 시작점으로 설정되어있는 반면에, 1945년의 중일전쟁 종결은 제4단계의 종결점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1942년의 延安文藝座談會가 제4단계의 종결점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까지를 제5단계로 삼고 있다. 이는 혁명사의 관점이 문학사에 투영된 것이다. 민족사적 측면에서 볼 때 중일전쟁의 종결은 민족의 해방을 달성한 중요한 분기점이었지만, 사회주의 혁명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외세로부터의 해방이 자본가의 탄압에서 해방되었음을 뜻하지는 않았다. 중일전쟁에 이어 벌어진 “해방전쟁”(제2차 국공내전)에서 국민당 정권을 타이완으로 밀어낸 1949년에야 비

6) 潘洵, 「論抗戰大後方戰略地位的形成與演變——兼論“抗戰大後方”的內涵和外延」, 『西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2期, 西南大學, 2012.

7) 김시준, 『중국현대문학사』, 파주: (주)지식산업사, 1992, 19쪽.

로소 진정한 의미의 “인민의 해방”을 달성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1945년의 일본 패망은 승리의 중간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며, 오히려 발표 이후 오랜 기간 문예 창작의 기준이 되어 문예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 1942년의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가 더욱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었다. 1942년은 이러한 관점에서 도출된 분기점이며, 이후에 王瑤가 저술한 『中國新文學史稿』(1951)에서도 1937년부터 1942년까지를 한 시기로 보아, 중일전쟁 속에서의 문학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1942년에서 1949년까지는 「講話」에 따른 문학의 발전양상을 분석하였다.⁸⁾

이후 출간된 문학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毛澤東(1893-1976)의 “新民主主義論”에 입각하여 서술되었다. 1959년에 復旦大學에서 편찬한 『中國現代文學史』⁹⁾는 제2편의 제목을 “黨領導下的文化戰線上的反‘圍剿’鬥爭——無產階級革命文學的偉大勝利 1928—1942”로 삼았다. 비록 제7장에서 중일전쟁 시기의 문학을 다루고 있지만, 일본과의 민족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의 문학 활동보다는 혁명사적 관점에서의 좌익 문예가 더욱 부각되었다. 제3편의 제목은 “在毛澤東文藝思想光輝照耀下——1942-1949”로, 延安 문예 좌담회에서 중국공산당의 국공내전 승리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毛澤東의 문예사상을 기준 삼아 이 시기 문예의 발전과정을 파악하였다. 吉林大學에서 편찬한 『中國現代文學史』¹⁰⁾의 下冊은 1928년에서 1949년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1942년의 「講話」를 기준으로 삼아 중일전쟁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고, 중일전쟁 전기의 문학은 두 개의 장에 걸쳐 國統區의 문학 활동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講話」 이후의 시기에서는 延安의 사회주의문학을 여섯 개의 장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國統區 문학은 1942년에서 1949년까지를 한 기간으로

8) 王瑤, 『中國新文學史稿(下冊)』, 『王瑤全集(第四卷)』,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0.

9) 復旦大學中文系現代文學組學生集體編著, 『中國現代文學史 第1冊』,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59.

10) 吉林大學의 『中國現代文學史』은 1959년에 第一冊, 第二冊 두 권으로 처음 출판되었다. 이때에는 1942년까지를 서술범위로 삼았는데, 1962년에 再版을 내면서 1942년에서 1949년까지의 문학사를 보충하여 上冊과 下冊 두 권으로 출간했다. 吉林大學中文系中國現代文學史教材編寫小組編, 『中國現代文學史 下冊 第2版』,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62.

삼아 혁명 문예 운동의 발전양상을 간략히 조명하였을 뿐이다.¹¹⁾ 이러한 서술상의 불균형은 혁명사의 관점이 투영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1955년에 출간된 丁易(1913-1954)의 유고작 『中國現代文學史略』의 章節 구조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 책은 1930년대 左翼作家聯盟¹²⁾결성부터 중일전쟁 발발 이전까지를 “第二章——左翼文學運動(上)”으로 삼고, 중일전쟁 전반기를 “第三章——左翼文學運動(下)”로 삼았다. 제4장에서는 “中國文學的工農兵方向”을 주제로 하여 毛澤東의 「講話」 발표 및 의의 등을 세밀하게 다룬 뒤에 제3절에서 중일전쟁 후반기 및 제2차 국공내전 시기의 國統區 문학을 간략히 다루었다. 즉, 중일전쟁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1942년의 「講話」이며, 「講話」 이전 시기는 1930년 이래 좌익문학운동의 발전과정으로 파악하고, 「講話」 이후 시기는 1949년의 사회주의 중국 성립까지를 사회주의문학의 발전과정으로 파악한 것이다.¹³⁾ 비록 중일전쟁과 國統區를 여러 章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국민당에 대해 비판 일변도로 서술할 뿐 중일전쟁 시기 國統區의 복잡한 면모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였다. 전체적 서술의 맥락은 중일전쟁이 아닌 혁명사가 기준이 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실상 王瑤와 유사한 체제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에서 편찬된 문학사는 공통으로 毛澤東의 「講話」가 발표된 1942년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문학사 서술은 혁명사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일찍이 국내 연구자 유세중에 의해 「講話」는 “1) ‘5.4’이래 신문학운동의 경험을 총결하여 문예와 프롤레타리아혁명을 통일시킨 마르크스주의 문예이론의 문헌으로서, 2) 항전후기와 해방전쟁기의 중국문예운동을 지도한 기본 정신으로서, 3) 문예이론과 정신이 작품생산과 작가의 생활 및 문예운동으로 구현되었다는 실천

11) 吉林大學中文系中國現代文學史教材編寫小組編, 『中國現代文學史 下冊 第2版』,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62.

12) 약칭 左聯, 魯迅등 진보적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문학단체이다.

13) 丁易, 『中國現代文學史略』, 北京: 作家出版社, 1955.

적 의미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현대문학발전사에서 시대를 나눌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¹⁴⁾고 평가받은 바 있다. 문제는 이처럼 「講話」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문학사 서술에서 중일전쟁이라는 사회현실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중일전쟁 중·후반기의 사회가 매우 단편적인 시각에서만 서술된 한계를 지녔다는 점이다. 비록 1942년의 「講話」 발표 이전 시기를 논할 때는 중일전쟁 속에서 문학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피고 있지만, 「講話」 발표 이후부터는 공산당의 문예 정책이 강조되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결적인 구도가 부각되었다. 여전히 진행 중이었던 중일전쟁은 사실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결 구도와 문학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희석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시기의 문학 환경이 문학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2) 타이완: 국민정부의 반공 사관과 1945년

타이완의 학자 周錦(1928-1992)이 저술한 『中國新文學史』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문학사를 서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시점은 중국의 문학사와 유사하지만, 그 평가는 상반된다. 예를 들어 1930년대 문학을 평가할 때 그는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결성된 左聯이 “군벌 사상과 봉건의 식을 모아서 黑社會적인 수단으로 문단을 틀어쥐고, 전체주의로써 문인을 통치하려 했다”¹⁵⁾고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중일전쟁 시기에 관하여서도 같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우선, 1938년부터 1949년까지를 제3기로 보고 있는 점은 중국의 현대문학사와 유사하다. 다소 독특한 점을 들자면, 여타 문학사가 주로 1937년의 7·7盧溝橋事變을 이 시기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과 달리, 周錦은 사실상 대략 한 달 후에 발발한 8·13 淞滬會戰

14) 유세중, 「중국현대문학사 시기구분론」, 『중국학연구』 제6집, 중국학연구회, 1991.

15) 原文: 左翼作家聯盟, 集了軍閥思想和封建意識, 以黑社會手段, 把持文壇, 要以極權統治文人。周錦, 『中國新文學史』, 臺北: 逸群圖書有限公司, 1983, 第17頁.

을 이 시기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근거로 당시 문단의 중심이 上海였던 점을 들고 있다.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 周錦은 제3기를 “混亂期”로 정의하고, 1937년 8·13 淞滬會戰부터 1945년의 중일전쟁 종료까지를 이 시기의 핵심 기간으로 삼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종전 이후부터 1949년까지 제2차 국공내전 시기의 문학을 중일전쟁 시기 문학의 연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講話」를 처리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평가 또한 상이하다. 중국의 문학사가 “新民主主義論”의 혁명사 관점에서 여러 개의 章節을 통해 「講話」의 의미와 영향 등을 상세하게 분석한 것과 달리 周錦은 아예 「講話」 자체에 대하여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문예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서술하면서, 「講話」가 공식적으로 문예를 정치에 종속시켜 버렸음을 비판하고, 「講話」에 대응하여 작성된 張道藩(1897-1968)의 「我們所需要的文藝政策」의 내용을 살펴보며 국민정부의 문예 정책이 정당했음을 강조하였다.¹⁶⁾

한편, 그는 이 시기의 문학을 지역적으로 武漢, 桂林, 重慶, 延安 및 勝利後的上海로 구분 짓고 있는데, 국민당의 통치 아래 있던 대후방의 중점 도시들을 먼저 나열한 후에 延安과 上海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국민정부를 우선시하는 관점이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실제로 다수작가들이 전쟁의 현실 속에서 운집했었던 중점 도시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살핀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가 대후방의 도시들을 하나의 ‘國統區’로 분류하지 않은 점은 그의 문학사가 혁명사에 따라 정치 진영을 중심으로 國統區, 解放區, 淪陷區로 구분했던 대륙의 문학사와는 다른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그는 국민정부의 문예 정책을 다수 소개하고, 중국의 문학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작가도 상당수 분석하였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기준으로 하여 작가와 작품, 문학운동 등을 평가하였고, 뚜렷하게 국민당 정권의 견해를 대변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현대문학사가 좌경화된 관점에서 중일전쟁 시기를 살펴보고

16) 周錦, 『中國新文學史』, 臺北: 逸群圖書有限公司, 1983, 第547-554頁.

있다면, 타이완의 현대문학사는 우경화된 시각에서 중일전쟁 시기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는 그 당시 냉전체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에 매우 당연한 결과였다고도 할 수 있다. 문학사 연구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양측의 상반된 시각 사이에서 더욱 정확히 실제 중일전쟁 당시의 사회현실과 문예계의 상황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홍콩에서 작성된 李輝英(1911-1991)과 司馬長風(1920-1980)의 문학사는 중일전쟁 시기 대후방 문학 연구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데에 유의미한 지표를 제시해준다.

3) 홍콩: 지정학적 특수성과 1945년

吉林省 출신 작가 李輝英은 1932년에 左聯에 가입하였고, 중일전쟁 시기에는 文協에 가입하여 文協의 기관지 『抗戰文藝』를 편집하기도 하였다. 그는 중일전쟁 이후에 長春大學과 東北大學에 부임했다가, 1950년에 홍콩으로 이주하였다. 홍콩대학과 홍콩중문대학의 聯合書院에서 교편을 잡으며 중일전쟁을 제재로 한 抗戰三部曲 『三都』의 제2부 『人間』 및 제3부 『前方』을 창작하는 한편 『中國現代文學史』를 집필하였다. 그의 『中國現代文學史』¹⁷⁾는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편의 제목은 “高舉抗戰文藝的大旗”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일전쟁 시기의 문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항전문예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제11장에서 문학운동을 살펴본 후에 문예 양식별로 여러 작가와 작품을 개괄하고 있으며, 「講話」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제16장 제2절에서 간략히 다루고 있다. 「講話」의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면서도, 앞서 살펴본 중국의 문학사와는 명백히 다른 수준에서 「講話」를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보다 더욱 눈여겨볼 점은 李輝英이 서술대상을 범주화하는 기준이다. 그의 문학사에선 “國統區”, “解放區”, “淪陷區”와 같은 정치적 공간 개념 대신에

17) 초판은 1970년에 출판되었고, 1972년에 재판이 나왔다. 판본의 차이점은 크지 않다. 李輝英, 『中國現代文學史』, 香港: 香港文學研究社, 1978.

전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유동적 공간 개념인 “前線”과 “(大)後方”이 서술 기준이 된다. 전쟁과 관련된 문예와 그렇지 않은 문예를 구별하고, 작품과 작가의 정치이념에 따라 서로 다른 절로 나누어 설명할 뿐 이를 “國統區”와 “解放區”라는 정치 공간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李輝英과 마찬가지로 동북 출신인 司馬長風(胡若谷, 1920-1980)은 유년기에 만주사변을 겪었고, 청소년기에는 중일전쟁을 겪었다. 중일전쟁이 끝난 후에 國立西北大學 역사학과를 졸업하였고, 1949년에 공산당이 北平을 점령하자 廣州와 臺北를 거쳐 홍콩으로 이주했다. 이후 공산당과 蔣介石(1887-1975) 정권에 모두 반대하는(反共反蔣) 제3세력 운동에 참여했다.¹⁸⁾

오랜 기간 출판업에 종사하며 정론가와 교육자로서 활약했던 그는 1968년부터 중국 현대사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1973년부터 중국 신문학 연구에 전념하였다.¹⁹⁾ 이듬해인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약 4년에 걸쳐 『中國新文學史』²⁰⁾를 집필했다. 역사학과 출신이며 오랜 기간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연구

18) 方寬烈, 「司馬長風的傳奇」, 『司馬長風作品評論集』, 林曼叔編, 『香港文學研究叢書』, 香港: 香港文學評論出版社有限公司, 2009, 第54-58頁. 原載於『文學評論』第4期8月號, 2009.

19) 司馬長風의 회고에 의하면, 그는 청소년기에 국내외 문학에 큰 흥미를 느끼고 다수의 문학작품을 섭렵했으나, 중일전쟁의 발발로 인해 학업이 좌절되었다. 국난의 위기 속에서 한 은사의 지도로 깨우침을 얻어 정치사상 방면에 전념하게 되었다. 홍콩으로 이주한 후에 오랜 기간 정치사상을 주로 연구하였고 1968년부터는 중국 현대사를 연구했다. 1973년에 갑작스레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를 대신하여 대학에서 현대문학 수업을 맡게 되면서 중국 현대문학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974년에 한 출판사로부터 『中國現代文學史』 저술을 의뢰받고 1978년까지 4년에 걸쳐 3권으로 구성된 『中國新文學史(上·中·下)』를 완성하였다. 그중에서 특히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중일전쟁 이후의 시기를 다룬 下卷 작성에 2년의 세월을 투입했는데, 이 시기의 자료가 전쟁으로 인하여 유실된 경우가 많았고, 이 시기가 상대적으로 긴 시간(1937-1949)을 포괄하며, 참고서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司馬長風, 「我與文學——『文藝風雲』代序」, 『司馬長風作品評論集』, 林曼叔編, 『香港文學研究叢書』, 香港: 香港文學評論出版社有限公司, 2009, 第69-72頁. 原載『文藝風雲』, 台北時報出版社, 1977. 司馬長風, 「跋」, 『中國新文學史(下)』, 香港: 昭明出版社有限公司, 1978.

20) 李輝英의 『中國現代文學史』가 사실상 대학 강의교재에 가까운 것과 달리 이 책은 진정한 문학사 저서로 볼 수 있으며, 홍콩학계의 시각을 대표하는 중국현대문학사 저서라고

해은 이력 때문인지 그가 저술한 문학사는 문학작품이나 문학운동의 배경 요인에 주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한 예로, 문학혁명을 다룰 때도 여타 문학사가 1917년 胡適의 「文學改良芻議」를 기점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 책은 그보다 이른 1915년의 문학 및 정치환경부터 살펴봄으로써 문학혁명 배후의 컨텍스트를 강조하였다.

더욱 중요한 특징은 이 책의 전반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홍콩이라는 제삼시대가 지닌 장점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정치환경에 제약받지 않는 문학사를 집필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특징은 중일전쟁 시기 부분에 관한 서술 기준에도 영향을 주었다. 총 3권으로 구성된 『中國新文學史』의 下卷은 전체가 “第五篇: 凋零期(1938—1949)”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다시 戰時와 戰後로 나누어 이 시기를 양분하는 기준이 1945년의 중일전쟁 종전이라는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중 첫 장인 제25장에서 戰時와 戰後의 문단을 설명할 때 지역에 따라 문단을 소개하였는데, 李輝英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미의 지역인 國統區와 解放區로 구분하지 않고 지리적 의미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제26장에서 제30장에 이르기까지 문예 장르별로 주요 작가의 주요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정치적 의미의 지역인 國統區와 解放區가 아닌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안배하였다. 그가 이 시기를 “凋零期”²¹⁾로 명명한 것은 이 시기의 문학이 전쟁과 정치에 눌려서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한 시기라고 봤기 때문이다. 타이완의 周錦 또한 문예의 정치 종속화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司馬長風과 유사한 논조라 여겨질 수 있으나, 그의 비판이 사

할 수 있다.

21) 이러한 평가와 관련하여 在美 학자 夏志清과 논전이 오가기도 했다. 夏志清은 司馬長風이 이 시기를 “凋零期”로 명명한 것은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신문학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는 인식을 보여주며, 이는 이 시기의 중국 문학이 일구어낸 성취, 특히 희극계의 번영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司馬長風은 당시 문단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시와 산문, 소설의 창작과 출판에서 과거보다 쇠락한 것은 사실이며, 전쟁의 특수한 여건 속에서 희극계가 활성화된 측면이 있지만 우수한 극작가가 적었음을 지적하였다. 林曼叔編, 『香港文學研究叢書』, 香港: 香港文學評論出版社有限公司, 2009, 第126-127, 143-144頁.

실상 공산당과 진보적 문인들의 활동을 겨냥한 정치적 비판에 가까운 것과 달리 司馬長風의 비판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예술성이 발휘되기 어려웠던 문예 환경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 둘이 말하는 문학과 정치의 관계는 다소 다른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홍콩에서 출판된 중국현대문학사는 냉전 시기의 국제정세 속에서도 어느 일방의 정치 입장보다는 제삼자의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여겨진다. 左聯에 가입했던 경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李輝英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지식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공산당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홍콩으로 이주하였고 문학사 서술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드러났다. 공산당을 피해 北平을 떠났던 司馬長風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륙을 떠나 타이완으로 이주했던 그는 얼마 안 되어 다시 홍콩으로 이주했고, 제3세력 운동을 전개하여 蔣介石 정권의 입장과의 거리를 유지했으며, 그의 문학사 또한 이러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李輝英과 司馬長風은 동시기에 홍콩에서 활동했지만, 정치 성향은 상당히 달랐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학사 분기 구분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보인다. 이들은 1937-1949년 사이의 문학을 기본 대상으로 삼고 중일전쟁을 중심으로 삼아 이를 1937-1945년과 1945-1949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러한 공통점은 이들의 문학사 서술이 훗날의 정치적 입장에서 새롭게 구성된(後設的)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중일전쟁 시대의 역사적 현장(歷史現場)을 환원하는 기준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데, 이는 탈 냉전적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사 서술은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문학사 서술에서 점차 많이 보이게 된다.

3.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현대문학사와 皖南事變

10년에 걸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이어진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중국 학

술계는 해외 학계와 교류하고, 새로운 학술관점을 도입하며 성장동력을 얻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중국현대문학사 또한 과거의 혁명 이데올로기 사관에 의한 서술에서 벗어나 다른 시각에서 작성되기 시작했다. 중일전쟁 시기 문학에 관한 관심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작가와 작품도 새롭게 연구되기 시작했다.

1984년에 黃修己(1935-2025)가 저술한 『中國現代文學簡史』의 章節 구조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눈에 띈다. 서론에서 중국 현대문학의 전개 양상을 살펴볼 때 무산계급 문학의 발전과정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개혁개방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작성된 이 책이 여전히 사회주의문학의 발전사를 골격으로 삼았음을 드러낸다. 세 번째 10년 시기 문학에 대하여서도 毛澤東의 「講話」가 “解放區 문예를 새로운 인민 문예의 단계에 진입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國統區의 진보적 문예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²²⁾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제19-23장에서 解放區 문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은 마치 개혁개방 이전의 문학사 서술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서술의 균형을 따져보면 이전의 문학사와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문학사가 중일전쟁 시기 문학을 소개할 때 解放區 문학을 위주로 소개하며 소위 國統區의 문학은 비교적 간략하게 소개하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黃修己는 國統區 문학 소개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제17-18장에서 중일전쟁 초기의 國統區 문학을 다루었고, 제24-26장에서 중일전쟁 후기의 國統區 문학을 다루었으며, 孤島 上海와 淪陷區 문학도 함께 처리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후기 國統區 문학을 설명할 때 皖南事變 이후의 정국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기존의 문학사에서 일률적으로 「講話」를 중일전쟁의 전후를 나누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그의 문학사가 國統區와 解放區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서술

22) 原文: 不但使解放區文藝進入了新的人民文藝的階段, 并且影響、推進了國統區進步文藝的發展。黃修己, 『中國現代文學簡史』,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84, 第8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문학사에서 皖南事變이 간략하게 언급되거나, 혹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과 비교하면 黃修己는 皖南事變의 배경적 요소를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후방 지역의 문학 지형을 분석할 때 1941년 1월에 발생한 皖南事變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국·공 양당은 1936년 西安事變을 계기로 제2차 국공합작을 체결하고 통일전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1938년 이후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면서부터 국·공 양당의 부대 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가 결국에 皖南事變이 벌어짐에 따라 제2차 국공합작은 실질적 결렬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국·공간의 정치·군사 구도의 변화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문학 환경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延安에 정풍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 또한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皖南事變으로부터 촉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皖南事變은 후방의 진보적 작가들이 창작 경향을 전환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으며, 국민정부의 대후방 문예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기 때문에 대후방의 문학 지형을 분석할 때 필수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배경 요소이다.

중국현대문학사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中國現代文學三十年』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출간 이후 여러 차례 교육부 중점교재로 선정되고 다수 학교에서 사용되어 정부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관변문학사라는 평가도 일부 있지만, 1980년대 개혁개방 시기의 자유로운 학술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문학사 서술을 기획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초판은 1987년에 上海文藝出版社에서 출판되었는데, 문학 발전에 영향을 끼친 다양한 요인을 두루 분석하고 세계문학과 관련성을 고찰하는 등 이전의 혁명사적 문학 발전관에서 명확하게 벗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講話」에 관하여서도 「講話」가 문단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한계를 지적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1940년대 문학사 서술 중에서 國統區 문학의 비중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1940년대 문단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게 서술하였다. 章節 구조를 보면 제3편이 “第三個十年(一九三七年七月——一九四九年九月)”로 설정된 점은 여

타 문학사와 유사하지만, 첫 장인 제21장에서 개괄적인 설명을 한 후 제22장에서 제27장까지 國統區 문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어지는 제28장에서 孤島 및 淪陷區 문학을 다룬 뒤에야 제29장에서 제32장까지 도합 4개 장에서 解放區 문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문학창작의 흐름과 추세를 분석할 때 「講話」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는 대신에 抗戰前期(1937년 7월 - 1938년 10월)와 抗戰中期(1938년 10월 - 1944년 9월), 抗戰後期及解放戰爭時期(1944년 9월 - 1949년 9월)로 구분하고 있다.²³⁾ 이는 중일전쟁이 격렬하게 진행되었던 초기와 대치 국면이 이어졌던 중기 및 豫湘桂會戰²⁴⁾의 발발로 전황이 급변했던 중일전쟁 말기를 시기 구분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 시기의 문학 활동이 전쟁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抗戰中期 서술에서 1941년의 皖南事變이 중요한 지표임을 강조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내정세가 급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와 시대 분위기 및 문학창작의 경향 또한 바뀌었음을 지적하였는데²⁵⁾, 후방지역의 문예 환경을 군사적 사건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각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출판된 修訂本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修訂本에서 第一篇과 第二篇은 소폭 개정되었지만 세 번째 10년 시기를 다룬 第三篇은 章節 구조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國統區의 면적이 가장 넓고 활동했던 작가 또한 가장 많았으며, 서로 다른 유파 경향이 존재하였고, 문학사상과 창작 모두 비교적 활발했기 때문에 “1940년대 문학”의 주류에 해당함²⁶⁾을 명시하는 한편, 초판본에서 國統區, 解放區, 淪陷區라는 정치 공간으로 章節을 구분하였던 것을 장르 중심으로 재편했다.

23) 錢理群, 吳福輝, 溫儒敏, 王超冰, 『中國現代文學三十年』,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7, 第 429-462頁.

24) 일본에서는 대륙타통작전(大陸打通作戰)이라고 칭한다.

25) 錢理群, 吳福輝, 溫儒敏, 王超冰, 『中國現代文學三十年』,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7, 第 448-451頁.

26) 다만, 皖南事變에 대한 서술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錢理群, 溫儒敏, 吳福輝, 『中國現代文學三十年(修訂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第446頁.

이처럼, 중국현대문학사의 서술체계는 냉전 시기의 굴곡진 정치환경 속에서 그 자체의 기준보다는 국가 혹은 정권의 정치적 입장이 우선되었던 시기를 겪었고, 이를 극복해 나가며 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문학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1940년대에 관한 해석은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과 직결되는 시기였기에 재구성의 과정에서 변화의 폭이 컸다. 중일전쟁을 분기점으로 삼아 새롭게 서술된 1940년대 문학에서 皖南事變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黃修己나 기타 문학사가들은 皖南事變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기 시작했다. 黃修己는 皖南事變을 1940년대 문학에 관한 시기 구분의 한 지표로 삼았고, 『中國現代文學三十年』에서도 중일전쟁 중기의 핵심 시대 배경 요소로 皖南事變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이들 문학사는 皖南事變이 문단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만을 주요 이야기할 뿐 皖南事變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으며, 국민정부와 중공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문단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에 대하여서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는데, 정치사 및 전쟁사와 문학사가 구분된다는 점 때문에 상세한 분석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의 중국현대문학사 속 중일전쟁 시기 분기 문제

6·25전쟁의 결과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은 냉전 시기에 이념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 학계는 오랜 기간 중국 현대문학을 연구할 수 없었으나, 1980년대 들어 일군의 학자들이 여러 정치적 제약 속에서도 중국 현대문학 연구에 뛰어들었다. 1992년에 발간된 김시준의 『중국현대문학사』는 약 10년간 축적해온 학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완성된 중국현대문학사라 할 수 있다. 저자는 ‘한국인의 시각’이라는 서술 기조 아래, 서론에서 중국현대문학사의 서술 기준 변화를 살펴보고, 각 시기 문학을 살펴보기 전에 시대 배경을 서술하여 한국 독자의 이해를 높이려 했으며, 논평이 아닌 사

실 서술의 방식을 통하여 가치평가를 독자의 몫으로 남겼다.²⁷⁾ 중일전쟁 시기의 문학사 서술에도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었다. 제3편에서 “中日戰爭期와 國內戰爭期の 文學(1937~1949)”을 살피고 있는데, 제1장에서 제2차 국공합작 및 文協의 성립 등 중일전쟁 초기의 군사 및 문예계에 관한 기본 배경을 개괄한 후에 제2장에서 각 지역의 문예활동 상황을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武漢, 重慶, 桂林, 上海, 香港을 살펴본 후에 延安의 문단과 延安文藝座談會를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국민당의 문예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는 대후방 문단의 중심 지역을 작가들의 운집 시기에 따라 살펴보고, 上海와 홍콩 문단을 소개한 뒤에, 마지막으로 延安 문단을 분석한 것으로, 서술 순서로 미루어 보면 延安 문단을 上海나 홍콩 문단보다 덜 중요한 대상으로 판단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 보면, 간략하게 서술된 대후방 및 上海, 홍콩 문단보다 延安 문단에 훨씬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고 있다. 게다가 延安文藝座談會를 통해 중공의 문예 정책을 살펴본 후에 다음 장에서 이에 대응하는 국민당의 문예 정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점은 좌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章節 배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서술에서 가치평가보다는 객관적 사실 서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한국 독자를 참작한 서술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김시준과 함께 국내 중국 현대문학연구의 선구자였던 허세욱의 『중국현대문학사』는 기존의 여러 문학사에서 제시된 분기점을 검토하며 이 기점이 성질에 따라 문학적 표준과 정치적 표준으로 나뉘는 지적하고, 다수의 문학사를 참조하여 1917, 1927, 1937, 1949년을 분기점으로 삼았다.²⁸⁾ 세 번째 10년 시기에 대한 그의 관점을 보면, 그는 이 시기를 사회주의문학의 성장기로 바라보는 좌익 학자들의 시각과 부정적 시각에서 현대문학의 퇴조기로 바라보는 우익 학자들의 시각을 제시한 후에, 두 견해의 절충적 성격인 “정체기”로 이 시기를 정의했다.²⁹⁾ 이는 제삼자의 중립적 시각을 고수하려는 태도가 반

27) 김시준, 『중국현대문학사』, 파주: ㈜지식산업사, 1992, 3-5쪽.

28) 허세욱, 『중국현대문학사』, 서울: 법문사, 1999, 24쪽.

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욱 눈여겨 볼만한 점은 國統區 문학을 서술하는 방식이다. 그는 우선 1940년대 문학을 장르별로 분류한 뒤, 장르마다 지역별로 설명하였고, 특히 國統區 문예를 소개할 때 다량의 소분류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國統區의 소설가는 첫째, 2,30년대의 원로작가들, 둘째, 탈정치의 작가들, 셋째, 현실풍자의 작가들, 넷째, 칠월파, 다섯째, 떠돌이 작가들, 여섯째, 우익작가들로 나누어 설명하였다.³⁰⁾ 이러한 특징은 작가를 경향에 따라 다시 범주화한 것으로, 이러한 서술 방법을 통해 國統區 문학이 지닌 다양성과 복잡성을 비교적 충실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홍석표(1966-)의 『중국현대문학사』³¹⁾ 또한 살펴볼 만하다. 이 책은 앞서 살펴본 문학사들이 주로 채택했던 10년 단위의 분할 방법을 따르지 않고 각 장을 주제에 따라 나누어 서술하였다. 중일전쟁 시기 문학의 경우 제12장 “전쟁 시기의 문단과 작가들의 문학적 대응”에서 중일전쟁 시기를 전후로 벌어진 문예 논쟁과 문학운동 및 이 시기에 두드러졌던 문학 양식을 살펴보았으며, 제13장에서는 京派와 海派를 살펴보며 淪陷 시기 上海의 대표 작가인 張愛玲과 錢鍾書를 소개하였고, 제14장에서 문예 정풍운동과 그 이후의 경과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문학사들이 주로 특정 지역과 시간에 따라 서술 대상을 범주화했던 것과 달리 그는 화제를 중심으로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과 시간을 서술범위로 삼았는데,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더욱 거시적인 시각에서 서술 대상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解放區에서 벌어진 정풍운동의 근본 원인에 皖南事變으로 인한 정국의 변화가 있음을 지적한 점은 바로 이러한 거시적 시각이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다.³²⁾

29) 허세욱, 『중국현대문학사』, 서울: 법문사, 1999, 334쪽.

30) 허세욱, 『중국현대문학사』, 서울: 법문사, 1999, 385-433쪽.

31) 홍석표, 『중국현대문학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32) 홍석표, 『중국현대문학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454쪽.

5. 나가며

문학사의 서술 방식에는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문학사마다 서로 다른 서술체계는 동일한 연구 대상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여, 중일전쟁 시기의 대후방 문학을 중심으로 기존의 중국현대문학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서술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 짓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냉전 시기 중국에서는 이데올로기가 문학사의 서술 기준이 되었고, 1942년은 그 결과로 제시된 분기점이었다. 같은 시기 타이완의 문학사에서 보이는 1945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적인 기준이 반영된 것이었다. 홍콩의 경우 타이완과 마찬가지로 1945년을 중요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데올로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의 현실을 기준으로 삼은 결과 전쟁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의 문학사 서술에서 대후방 문학과 중일전쟁이 점차 부각된 점은 탈냉전 이후 ‘역사 현장으로 돌아가자’라는 중국학계의 기본 시각이 반영된 성과이다. 세 번째 10년 시기 문학에 대한 문학사 서술의 변화는 중일전쟁이 이 시기의 사회뿐만 아니라 문학사에도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 시기 문학을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문학사 이외에도 1985년에 錢理群(1939-), 陳平原(1954-), 黃子平(1949-)이 “20세기 문학”을 주장한 이래 중국현대문학사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근래에는 에릭 홉스봄(1917-2012)이 주장했던 “단기 20세기”라는 사회학적 시기 구분론을 문학사에 적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과거의 문학사와 함께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문학사 경향을 분석한다면 중일전쟁 시기 대후방 문학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參考文獻

- 김시준, 『중국현대문학사』, 과주: ㈜지식산업사, 1992.
- 유세중, 「중국현대문학사 시기구분론」, 『중국어연구』 제6집, 중국학연구회, 1991.
- 허세욱, 『중국현대문학사』, 서울: 법문사, 1999.
- 홍석표, 『중국현대문학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 丁易, 『中國現代文學史略』, 北京: 作家出版社, 1955.
- 復旦大學中文系現代文學組學生集體編著, 『中國現代文學史 第1冊』,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59.
- 黃修己, 『中國現代文學簡史』,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84.
- 吉林大學中文系中國現代文學史教材編寫小組編, 『中國現代文學史 下冊 第2版』,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62.
- 李輝英, 『中國現代文學史』, 香港: 香港文學研究社, 1978.
- 林曼叔編, 『司馬長風作品評論集』, 『香港文學研究叢書』, 香港: 香港文學評論出版社有限公司, 2009.
- 潘洵, 「論抗戰大後方戰略地位的形成與演變——兼論“抗戰大後方”的內涵和外延」, 『西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2期, 西南大學, 2012.
- 錢理群, 吳福輝, 溫儒敏, 王超冰, 『中國現代文學三十年』,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7.
- 錢理群, 溫儒敏, 吳福輝, 『中國現代文學三十年(修訂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 司馬長風, 『中國新文學史(下)』, 香港: 昭明出版社有限公司, 1978.
- 王瑤, 『中國新文學史稿(下冊)』, 『王瑤全集(第四卷)』,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0.
- 夏志清, 『中國現代小說史』,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 周錦, 『中國新文學史』, 臺北: 逸群圖書有限公司, 1983.

Abstract

Reconsidering the Periodization of Modern Chinese Literary History

— Focusing on Narratives of the Great Rear-Area Literature during the Sino-Japanese War

Choi, Won Jun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ives presented in the History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regarding the Great Rear-Area literature during the Sino-Japanese War, focusing on how these features varied according to regional and historical contexts. Aft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onsolidated control over the mainland, literary discourse on this period was reconstructed within a revolutionary historiographical framework centered on the Party. This narrative approach led to the marginalization and distortion of the achievements of Great Rear-Area literature.

In contrast, literary histories from Taiwan highlighted the literary activities of the Great Rear-Area, endorsed the cultural policies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and criticized leftist and Communist literary lines. Drawing on its unique political context, Hong Kong's literary historiography pursued an objective narrative that avoided alignment with any particular political ideology, designating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Sino-Japanese War as major historical dividing points.

Since the period of Reform and Opening Up, Chinese literary historiography has increasingly shed light on the Great Rear-Area literary scene and begun to explore the impact of war and military conflict on the literary field. In the case of Korea, efforts have been made to understand major events from a macro-historical perspective.

The manner in which literary history is narrated connotes the perspectives through which literature is viewed. Examining the differences and changes in the historiography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across different periods and regions serves as an important indicator of how academic perspectives on modern Chinese

literature have evolved. In particular,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the historiography of rear-area literature can be considered an essential undertaking for understanding the literature of the third decade from a new perspective.

Key words : Modern Chinese Literary History, Yan'an Forum on Literature and Art, Talks at the Yan'an Forum on Literature and Art, Second Sino-Japanese War, Wannan Incident, Periodization, Great Rear Area

투 고 일 : 2025. 7. 10. / 심 사 일 : 2025. 7. 15. ~ 2025. 8. 15. / 게재확정일 : 2025. 8. 20.

